

## 우리의 만형 소광희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

이 명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소광희 선생님 하면 나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푸근한 형님” 바로 그것이다. 그 형님이 이제 정년으로 대학 강단을 떠나실 날이 다가온 것이다. 철학계의 “집사(執事)”로 동분서주 하시던 “젊은 철학도 소광희”가 벌써 백발의 “원로교수”로 정년을 맞이 하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종합화되어 관악산으로 모일 적에 소광희 선생님은 서울 음대 철학전임교수로 있다가 우리 철학과 교수로 오셨는데, 그 때 나는 철학과 신규채용 내정자로서 “동료교수”로 만났다. 물론 그 때 소광희 선생님은 철학과의 막내동이에 속해 있었다. 내가 소광희 선생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은 내가 대학원 학생으로 박종홍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때 박 선생님께 현상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여쭙었더니, “나는 잘 모르니 현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소광희 군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다. 소 선생님은 그때 대학원의 “전임강사”라는 특별한 자리에 있으면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셨다. 그 당시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이외에는 “전임”이 없었는데, “전임강사”라는 특별한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소광희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에서 강의 같은 교육을 담당하신 것 같지는 않았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1973년) 나는 소광희 선생님을 나에게 “인생의 기초”를 닦아주시는 분으로 만났다. 그 인생의 기초를 닦아주시는 일이란, 술 한 잔 제대로 못하는 가련한 서생(書生)에게 술 한 잔 마시는 법부터 인생 수업을 시키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선

종로 2가에 있던 “낭만”이라는 맥주 집에서 맥주 마시는 법부터 시작했다. 낭만은 그 당시 시인, 묵객이라 할 교수, 문인, 언론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데리고 가신 곳은 무교동 한옥촌의 소위 “니나노” 집이었다. 오늘날은 그 자취조차 없이 사라진 무교동 한옥촌은 한국의 옛 주선(酒仙)들의 정취의 편린을 맛볼 수 있는 주가(酒家)였다. 거기서 나는 한국 사람들의 주도(酒道)가 무엇인가를 소 선생님께 전수 받았던 것이다. 술 값은 말할 것도 없고, 택시 값까지 운전기사에게 선불해 주시면서,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는 당부까지 해 주시곤 했다.

아까 “대학원 전임강사”라는 직함이 잠깐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소 선생님은 당시 대학원장으로 계시던 박종홍 선생님의 보좌관 비슷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 추측한다. 소광희 선생님은 비단 박종홍 선생님의 곁에만 계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분은 그야말로 철학과의 집사(執事)와 같은 위치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뒷바라지를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학회의 크고 작은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한국 철학계의 비화(秘話)는 없다고 해야 할 정도다. 살아있는 한국 현대철학사라고나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직접 겪은 과히 오래되지 않은 몇 가지 일들을 적어 본다. 지금 10여년째가 되는 “한국철학자 연합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소광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전과 대구, 그리고 광주를 넘나들던 일이 있다. 분열되어 가는 듯 싶은 한국철학계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이대 소홍렬 교수와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열을 내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연합대회의 한 행사로 “한민족 철학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을 때 대회장을 맡으셨던 소광희 선생님을 모시고, 동아일보의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중배 선생님을 찾아가서 동아일보가 후원을 맡아 줄 것과 재정적 후원을 맡아 줄 기업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 결과 포항제철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동아일보의 사고(社告)를 통한 행사 안내 및 주요 논문들의 게재 등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포항제철의 재정 지원은 아마도 우리 학회가 전에는 차마 꿈도 못 꾸었던 그런 지원이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

고 내가 철학과 학과장으로 일할 때 소광희 선생님과 더불어 철학사상연구소를 창립하여, 최초로 우리 학과가 국제철학회의를 열었던 일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인문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인문학 발전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종래에 보지 못했던 정부로부터의 인문학 연구 지원을 끌어낸 일 역시 기억에 남는다.

소광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 철학과의 “소장교수”에서 “노장(老壯)교수”를 거쳐 “원로(元老)교수”가 되시더니, 급기야 정년의 꽃다발을 안게 되셨다. “쏟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이라더니, 우리들의 만형 소광희 선생님의 정년을 맞으면서 삶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깊은 감회를 새삼스럽게 느낀다.

남아(男兒)의 기개(氣概)로 말하면, 지금도 소 선생님을 능가할 후배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털털하면서도 훈훈한 사람다움의 정취는 아마도 오늘의 후배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소 선생님의 삶의 향기는 일상의 대인 관계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한때 모 일간지에서 일 년여에 걸쳐 연재된 그분의 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생각과 사람됨의 향기를 느꼈다. 그래서 그분의 글들은 한때 서울의 지가(紙價)를 높여 놓기도 했다.

정년은 대학 선생의 마감일 뿐이요, 인생의 마감일 결코 아니다. 그 동안 학교 선생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하고 싶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으실 것이다. 이제는 그 하시고 싶으셨던 일들을 자유의 넓은 시공(時空) 속에서 마음껏 이루시기를 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철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우리 후배들은 만형의 목소리를 곁에서 매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 할 뿐이다.